

대장 내시경 전처치 용액 복용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 3예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유민 · 정성원 · 이명수 · 백승훈 · 안선호 · 송주홍

서 론 : 대장 내시경 전처치 후 발생하는 저나트륨혈증은 혈장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농도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그 기전으로는 대장 전처치시 구토와 설사가 유발되고 이에 따른 탈수의 결과로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되는 것과 대장 내시경시 발생하는 구역, 통증, 대장 조작등의 비삼투성 자극에 의해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되는 것 등이 있다. 대량의 대장 전처치 용액의 복용 후 발생하는 전해질 장애는 신기능 장애나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 노인 등에서 처럼 체내 수분 조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. 하지만 저자들은 신기능의 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대장 전처치 용액 복용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 3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중례 1 : 9년전 대장 용종으로 내시경적 용종 제거술을 시행한 74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심와 부 통증 발생해 대장 내시경 시행위해 입원 하였고, 4리터의 대장 전처치 용액 복용후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었으며 24시간 후 의식상태가 혼미해 졌다. 전해질 검사에서 Na^+/K^+ 128/3.4 mEq/L, BUN/Cr 5.7/0.5 mg/L, S-osm 265 mOsm/Kg, U-som 274 mosm/Kg, Urine Na 125.0 mEq/L 이었다.

중례 2 :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개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행 하려고 하였던 69세 남자 환자가 전처치 용액 magcorol 250ml 복용하고 구토와 설사 반복되었으며 6시간 후 의식 상태가 혼미 해졌다. 전해질 검사상 Na^+/K^+ 121/4.4 mEq/L, BUN/Cr 10/1.06 mg/L, S-osm 266 mOsm/Kg, U-som 467 mosm/Kg, Urine Na 107 mEq/L이었다.

중례 3 : 식도 무이완증을 진단 받은 45세 여자 환자가 대장 내시경 시행하려고 내원 전날 전처치 용액 4리터 복용 후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였고, 내원일 새벽 의식저하 발생하여 내원하였다. 전해질 검사상 Na^+/K^+ 125/4.4 mEq/L, BUN/Cr 6/0.5 mg/L, S-osm 245 mOsm/Kg, U-som 399 mosm/Kg, Urine Na 76.1 mEq/L이었다.

결 론 : 대장 내시경 전처치 용액 복용 후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탈수 유발로 인하여 바소프레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저나트륨혈증을 야기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따라서 대장 내시경 전후에 혈중 전해질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